

'참전용사 희생, 평화로 보답'

국가보훈처, 6·25전쟁 기념식... 이낙연 총리 "한반도, 평화의 발신지로 세계에 기여해야"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69주년 기념식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희생과 용기,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군·유엔군 6·25 참전유공자 및 참전국 주한 외교 사절,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시민, 군 장병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6·25 참전유공자 대표와 2019년 보훈처 선정 6·25 전쟁영웅 유족이 함께 입장하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6·25 참전부대기와 육·해·공군·해병대기, 유엔기, 태극기 순으로 행사장에 들어서며 유엔참전국과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국방부 중창단의 선도로 4절까지 애국가 제창과 국민의례를 하고, 순국선열, 호국영령 및 유엔군 전몰장병을 위해 묵념했다.

이낙연 총리는 기념사에서 "오랫동안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화약고였다. 앞으로는 한반도가 평화의 발신지로서 세계에 기여해야 한다"며 "그런 한반도를 만들도록 남북한과 관련국들이 협력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내의 참전용사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싸우셨다"며 "이제 저희들은 평화정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다. 여러분의 헌신을 영민히 기억하며 충실히 기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기념공연은 1막 '아! 그날 6·25', 2막 '약속', 3막 '귀환'을 주제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1막은 6·25전쟁의 발발과정을 보여 주고, 전쟁 가운데 국민들의 애환을 영상물과 육군 2군단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으로 표현했다.

2막은 6·25전쟁에 참전한 육군 2사단 고(故) 정찬오 이등중사, 서울 동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69주년 행사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유엔군 전몰장병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성중학교 故 이우근 학도병, 서울대 출신 故 김세환 소위 등이 가족에게 쓴 편지로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조명했다.

3막은 육군 2군단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공연으로 치열했던 고지전을 재연하고, 화살머리고지 전투 참전유공자 민경식(91) 옹의 인터뷰와 편지함과 그리움을 나타냈다.

기념 공연인 '희망의 대항쟁'은 가수 윤창기씨의 선도로 함께 여는 희망의 대한민국과 한반도 평화를 다짐하는 노래 '여러분'을 합창했다.

기념 공연인 '희망의 대항쟁'은 가수 윤창기씨의 선도로 함께 여는 희망의 대한민국과 한반도 평화를 다짐하는 노래 '여러분'을 합창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군악대의 연주와 국군중창단의 선도로 참석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수기를 흔들며 6·25 노래를 제창했다.

보훈처는 "이번 행사를 통해 6·25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튼튼한 안보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6·25 지방행사는 17개 광역시도를 비롯해 전국 216개 지역에서 지자체 또는 6·25 참전유공자회 등 주관으로 열렸다. /뉴스

지진 따른 방사능 재난 발생 대응능력 키운다

전북도-고창군, '한빛원전 방사능 방재 훈련' 실시

전북도와 고창군은 25일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 규모 6.9 지진 발생에 따른 한빛원자력발전소 3호기 원자로 자동정지로 인한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해 '2019년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했다.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은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

획구역 내 지자체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비상계획구역은 비상시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국가차원의 최소 인프라 구축 지역을 선연적 의미로 설정한 구역으로 실제 사고시에는 비상계획구역과 상관없이 환경감시 및 방사선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주민대피 등 주민보호조치가 수행된다. /김진성 기자

이번 훈련은 도, 고창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창경찰서, 고창소방서 등 5개 기관과 상하면, 무장면, 공음면, 해리면, 심원면 주민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중점 훈련내용은, 한빛 3호기 적색비상 발령에 따른 상황 접수, 방사선 비상상황 전파, 주민보호용 갑상선 방호약품 배부 및 주민소개, 주민대피구호소 운영 등으로 실제 주민소개(疎開, Evacuation) 훈련을 중점 추진했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오늘부터 기업들에 순차 공급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장기임대용지를 오는 26일부터 투자 협약 기업들에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은 새만금 지역의 경제회복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내년까지 총 100만㎡ 용지를 확보해 저가의 임대료(재산가액의 1%)로 최대 100년간 기업에 제공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1000억원(국비 80%, 지방비 20%)이다.

개발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3만㎡ 용지를 최초 매입한 이후 기업의 입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6개 기업(네모이엔지, 레나인터내셔널, 톱립파마텍, 테크윈, 테크윈에너지, 게놈엔메디신)이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올해도 33만㎡(340억원) 용지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으로, 먼저 16만5000㎡를 매입해 공급한 뒤 나머지 용지는 예산 당국과 협의해 매입·공급할 방침이다.

한편, 개발청은 장기임대용지가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낮춰 기업을 유인하는 핵심 투자혜택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뉴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전북도, 40명 대상 올 상반기 이임식 개최
송하진 도지사 "인생 후반전 새 출발 응원"

전북도는 25일 도청 3층 공연장에서 퇴직자와 공로연수자 및 가족, 동료 공무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상반기 퇴(이)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퇴(이)임자들은 오랜 시간 묵묵히 내조해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동료·후배들과 한자리에 모여 지난날을 회상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송하진 도지사는 송별사를 통해 "이별이 아쉽고 서운하지만,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공직이라는 타이어를 새것으로 바꾸고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퇴임자의 새 출발을 응원하겠다"고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전북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 총 40명(정년퇴직 4· 명예퇴직 4· 공로연수 32)이 공무원 현직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이개호 장관 "농수산대 제2캠퍼스 설치 필요 없다"

대학 사태 관련 김종희 국회의원실 찾아 입장 밝혀

"정원 늘릴 경우 전북지역 내에서 부지 찾아야"

민주당원 김종희 의원(국회 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은 최근 한국농수산대학 사태와 관련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한농대 분할 및 분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없다고 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의 요청으로 의원실을 방문한 이 장관은 "넓지도 않은 대한민국 땅에 제2, 제3의 한농대 캠퍼스를 설치할 필요성 자체가 없다"며 "단일교 한농대 분교 설치 계획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장관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약속인 만큼 전북도민들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농대 부지는 한농대 정원을 현행 500명에서 1000~2000명 수준으로 늘려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며 "한농대 정원을 늘릴 경우 현 부지를 확대하거나 전북지역 내에서 부지를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분교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북도민과의 사전 협의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분교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민과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농수산대학 지킴이'를 자처하는 김 의원의 장관 면담은 ▲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실시한 민주당원 김종희 의원 공동 '한농대 분할 법안 즉각 철회 기자회견' ▲ 19일 한농대 정문 앞에서 실시한 '한농대 분할 시도 저지 1인 시위' ▲ 한농대 소재지를 전라북도도 명문화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이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한바탕 전주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